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일 새벽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는 긴박한 상황(왼쪽부터), 같은 달 14일 탄핵을 촉구하며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운집한 3만여명의 광주시민, 최근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에 입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광주일보 자료사진>

12·3 불법계엄 1년

국민은 2024년 12월 3일 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또 한 번 구해냈다.

윤석열 전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 앞으로 몰려들었던 수만 명의 시민들은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서며 “계엄 해제”를 외쳤다. 헌정질서 파괴에 맞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불굴의 ‘5·18 정신’이 국민저항의 동력이 됐다. <관련기사 2·3·4·5·16·17면>
불법비상계엄 1년이 지난 현재 내란 가담자들에게 대한 사법적 단죄가 임박했음에도,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내란이 진행형이다. 1980년 5월 광주를 피로 몰려들었던 ‘가해자의 논리’가 2025년 ‘내란 옹호론’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계엄을 “구국의 결단”이나 “불가피한 통치 행위”로 미화하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45년이 지나도록 5·18 민주화운동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폄훼해 온 ‘협오와 배제’의 정치 공학이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새로운 숙주를 만나 부활했음을 알리는 퇴행선호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 전환을 위해 광주 시민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폭도”로 규정해 고립시켰듯,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의도 국회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

1년 됐지만 진실 규명 진행 중 정치 양극화에 ‘내란 옹호’ 여전 협오의 고리 끊어내지 않으면 5·18처럼 왜곡·편향 재연될 것

으로 낙인찍었다.

주어와 목적어만 바뀌었을 뿐, 집권 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반대 집단을 ‘절멸시켜야 할 적(敵)’으로 상징하고 물리력을 동원한 ‘내란의 메커니즘’은 45년 시차를 두고 판박이처럼 재현됐다. 문제는 이러한 ‘낙인찍기’가 내란이 실패한 현재까지도 특정 지지층 사이에서 강력한 신념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5·18이 역사적 규명이 끝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군 개입설” 등의 가짜뉴스가 유행하는 것처럼, 12·3 사태 역시 “야당의 압법 독재가 불러온 참사”라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으로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를 지목한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조차도 “우리 편이 한 일”이라는 이유로 용인되거나, 심지어 영웅적 행위로 둔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5·18 왜곡 세력과 지지기반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왜곡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지금 이 갈등과 양극화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12·3 사태 또한 ‘제2의 5·18’처럼 끊임 없는 왜곡과 편향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국민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곧이는 사면과 정치적 타협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받는다’는 교훈을 어떻게 회색했는지 뼈저리게 목격했다. 결국, 미완의 단죄와 어설픈 용서가 결국 2024년 군인들이 다시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할 수 있게 만든 심리적 면죄부가 됐다. 내란을 일으켜도 시간이 지나면 정치적으로 복권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우리 사회가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2·3 사태의 완전한 해결은 법정에서의 형량 선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치권이 상대를 악마화하고 국민을 분열하는 ‘적대적 공생 관계’를 청산하지 않는 한, 내란의 불씨는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24·3추경안에서 “4·3의 비극과 12·3의 폭거는 적대와 혐오라는 같은 뿌리에서 자라났다”고 지적한 바와 같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양극화 해소’와 ‘타협 없는 진실 규명’이다. 내란 가담자들에게는 관용 없는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하며, 동시에 정치권은 상대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그것만이 45년 전 광주의 피울음을 닦아주고, 1년 전 논란 가슴을 쓸어내린 국민에게 건넬 수 있는 유일한 위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왜곡을 방치한 사회에는 분열만이 남는다. /정병호 기자 jusbh@

“곳곳 숨겨진 내란행위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

이재명 대통령 밝혀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 성명

이재명(사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이틀 앞둔 1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이전에 국군이 먼저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도발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전쟁 날 뻔...위대한 대한민국이 막았습니다’라는 제목을 게재하고 “계엄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하려고, 군대를 시켜 북한에 풍선까지 날려...”라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오는 3일 국내외에 발신할 메시지를 고심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빛의 혁명’ 1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고, 외신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비상계엄 사태 극복의 주인공은 시민이었던 만큼 대통령실 차원에서 거창한 별도 행사를 치르지는 않되, 대통령으로서 그 기억을 함께 나누고 국제사회에 의의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데 집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초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할 예정이라고 공지했으나 이날 공식 용어를 ‘특별 성명’으로 정정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 불쇼’에 출연해 “윤석열이 그날 밤 특별 담화를 하면서 계엄을 선포했다”며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양자·방산’ 미래 100년 먹거리로

성장 동력 육성 조례 제정 착수

광주시가 AI(인공지능)와 미래차 산업의 뒤를 이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양자(Quantum)’와 ‘방위산업(Defense)’을 확정하고 기반 조성에 나섰다. <관련기사 6면>

2026년 정부가 추진할 첨단전략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양자산업 육성 조례안은 양자컴퓨터와 통신, 센서 등 첨단 기술 분야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와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이다. 단순 연구자원을 넘어 양자소자를 실제 공정에서 생산·시험할 수 있는 제조시설인 ‘양자팩(Fab)’ 구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양자산업육성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연속성과 전문성도 담보하도록 했다.

방위산업 육성 조례안은 광주의 산업특성을 반영해 ‘기술 특화형’ 지원책을 담았다.

대규모 제조 공장이 없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방 중소·벤처기업 육성과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방위사업청과 협력해 호남권 방산 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유치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시가 조례 제정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정부가 2026년 지정 예정인 국가 첨단 전략산업 클러스터가 있다. 공모 평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지원 의지와 제도적 준비 상황이 결정적인 배정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상반기 조례 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방 확보를 위한 기획보고서 작성 등 실무 작업에 착수한다. 이어 하반기에는 양자산업 세미나와 방위산업 포럼 등을 연달아 개최해 봄을 조성하고 클러스터 조성 로드맵을 확정해 정부 공모에 도전할 계획이다.

손두영 광주시 미래산업총괄관은 “이번 조례 제정은 광주가 기술 소비 도시에서 첨단 기술 공급 기지로 체질을 개선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2026년 국가 클러스터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청소년 갱단 소문에 학생·학부모 불안	▶7면
치매가 스며든다...광주형 치매마을 추진	▶18면
K리그 대상 시상식 전남 웃고 광주 울고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분함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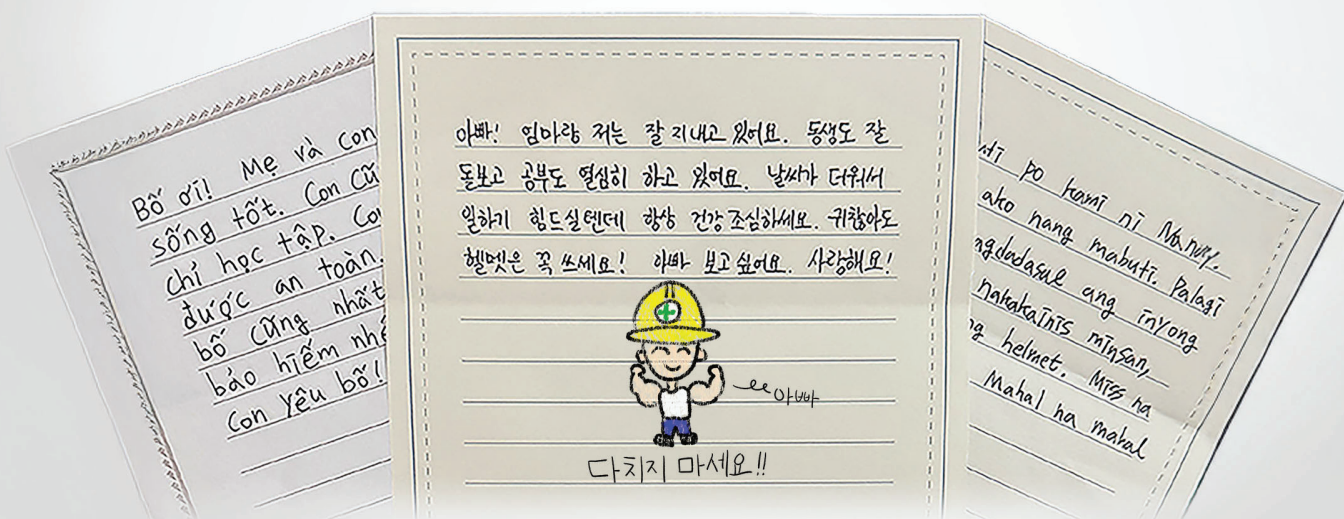
이 작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주최한 <2025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으로, 국민 “이동후, 최광현”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다치지 마세요"

사고는 당신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4대 금지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생성형 AI ChatGPT, DALL-E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